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Futures curve suggests Capesize rates may stay around \$15,000

발틱해운거래소에 따르면, The weighted time charter equivalent (TCE) 평균은 5월 15일부터 10월 6일 간 일일 2,394달러에서 34,896달러를 오가면서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보도됨. 연말로 다가가면서 이러한 변동성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Capesize벌크선 운임기준은 일일 1.4만~1.5만달러 수준으로 연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내년 발주량 2배 이상 증가

글로벌 신조선 발주량과 한국의 수주량이 올해보다 2배이상 증가한다는 전망이 제기됨.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발주량은 3,000만CGT 내외이며 이는 2019년 2,860만CGT보다 증가한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됨. 한국의 수주 전망치는 1,000만CGT내외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곧 '컨'선 발주 붐물 터진다

컨테이너선사들은 컨테이너수요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발주를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보도됨. 전세계 컨테이너선 수주잔고가 서비스 선대 대비 8.2%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노후선 해체량이 증가하며, 선대를 리뉴얼하려는 신조 발주 속도는 더욱 가속화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조선 빅3, 4분기 실적 올해 최대치 예상...수주 물꼬 튼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역대 최악의 발주 가뭄 속에 국내 조선 빅3사가 지난해보다 나은 3분기 실적을 올리며 선전하고 있다고 보도됨.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올 4분기에 7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며 이는 지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개 분기 누적 수주량에 1.7배에 달한다고 보도됨. (머니투데이)

현대건설기계, '신형 휠로더 HL960A'獨 고객사 확보

현대건설기계가 신형 휠로더를 앞세워 독일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보도됨.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 신형 휠로더 HL960A가 독일 폐기물 전문 관리 및 재활용 업체 'BTU 하트미어(Hartmeier)'의 토공 기계 장비선대로 합류한다고 보도됨.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BTU 하트미어는 1996년 설립돼 건설 철거(C&D) 폐자재의 처리와 재처리전문업체라고 보도됨. (더그루)

Wisdom Marine, 일본에 LPG선 발주

세계 2위 Handymax벌크선 선주인 대만 Wisdom Marine이 일본 조선사에 5,000CBM급 LPG선을 발주하면서 LPG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고 보도됨. 선가는 1,800만달러수준이며 인도기한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됨. (선박뉴스)